

정부, 주말 20만명 추가 이동... 유럽·美 같은 폭발 나타날 수 있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여의도 윤종로 벚꽃축제가 전면 취소된 6일 서울 여의도 윤종로 벚꽃길이 출입통제 되고 있다.

지난 주말 개인 이동량 4% 증가.. 약 20만명 늘어

강남·홍대 외 여의도 등 벚꽃명소에도 사람 몰려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추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지난 주말 국민들의 이동량이 신천지 발생 직후인 2월말보다 20%가량 늘어나 2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폭발적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6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전체 확진자 중 19.8%에 달했으나 3월31일 6.1%로 감소했다. 집단감염 사례는 3월12일~21일 사이 11건에 발생했으나 3월22일 ~31일에는 4건으로 줄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경례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자료를 분

석했더니 다시 4%포인트 정도 증가해서 인원수로 보면 20만명의 증가량"이라며 "이동량이 증가해서 2월말에 비해 20% 정도 이동량이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3월21일부터 종교·체육·유통시설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6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전체 확진자 중 19.8%에 달했으나 3월31일 6.1%로 감소했다. 집단감염 사례는 3월12일~21일 사이 11건에 발생했으나 3월22일 ~31일에는 4건으로 줄었다.

여기에 지난 주말 4%포인트가량 더

증가해 20만명가량 이동이 늘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늘었던 것이 줄어들다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난 듯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했다면 지금 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5일 젊은 연령층이 많이 방문하는 상업 지구인 명동, 강남역, 홍대입구역 근처와 벚꽃 등 꽃놀이 명소들이 여의도, 한강변, 남산 인근 지역 방문객들이 눈에 띠게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해외유입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산발적 집단감염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해외유입 누적 확진환자는 769명이고 이 중 92.2%가 내국인이다. 전체 누적확진환자 중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확진환자는 10.2%인 1042명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여지는 폭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지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 사망률 급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직 남아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전파경로를 차단해서 방역당국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감염환자의 2차 감염을 차단하고 유행고리를 끊어주는 효과가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naver.com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하는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격리시설 입소 거부한 대만 여성 추방... 첫 강제추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법무부가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을 추방했다고 6일 밝혔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 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첫 사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하고 입국했고, 다음날인 3일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했다.

그러나 정작 입소과정에서는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표현을 표시했고, 이후 격리시설에서 퇴소된 뒤 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대만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5일 오후 7시 45분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했다.

대만인 여성 외에도 지난 1일 모든 입국자의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

서울시

미래로 뻗어가는 도시, 시흥입니다.

-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 클러스터
- 육·해·공 무인이동체를 연구하는 배곧경제자유구역
-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시흥형 스마트시티
-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이재명, '배민' 비판...“독과점 횡포 시작된다”

수수료 체계 정액제에서 건당 부과방식으로 바꾼 배민에 공세
“공정한 경쟁질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 발언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건당 부과 방식으로 바꾼 배달의 민족(배민)을 겨냥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문제 해결 의지도 피력했다.

이재명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안 그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봅니다. 물론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좋은 제안 바랍니다.



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며 힘 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라며 배민에 공

세의 포문을 열었다.
이 지사의 발언은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바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되레

커졌다는 한 방송사 보도 직후 나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문 1건당 5.8%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방송은 수수료 부담이 5배 가까이 증가한 한 중국음식점 사례를 들며 수수료 체계개편이 연 매출 3억원 이하에 더 유리하다는 게 배민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수수료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했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오늘(5일)부터 강화된다.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 ‘벌금 300만원→10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오늘(5일)부터 강화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부터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늘면 이탈자도 함께 늘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광민 기자 hanminbo@daum.net

트럼프 “매우 참혹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30만 명 넘어… “앞으로 가장 힘든 몇 주가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1~2차 세계대전과 견주며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의 백악관 브리핑에서 “아마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다. 이는 아마도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라며 “불행히도 많은(a lot of)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은 것보다는 사

망자 발생 규모가 훨씬 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불행하게도 매우 매우 치명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매우 참혹한 시기에 다가가고 있다”며 “나는 우리가 이러한 종류와 같은 (사망자) 숫자를 일찍이 보지 못 했다고 진짜 믿는다. 아마도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또는 2차 세계대전 기간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매우 나쁜 숫자”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추정치 제시 없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과거 세계대전 사망자 수와

대등할 수 있다고 비교했다고 보도했다. 특유의 화법 스타일을 볼 때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날로 3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4일 오후 6시 30분(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만 3000여명 증가한 30만885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연장하면서도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에서 매우 힘든 2주를 앞두고 있다. 매우, 매우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백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며 10만명에서 24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모델을 소개한 바 있다.

오늘근 기자 sinmun2032@daum.net

검찰, 조주빈 주말 연속 조사... 관건은 범죄단체조직죄

검찰이 주말 내내 ‘박사’ 조주빈(24·구속)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테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 아동범죄조사부장)는 5일 오전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9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씨는 전날에도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들의 운영 체계와 공범들과의 공모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지난 3일 한 차례 조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 전까지 수사에 속도를 낸 뒤 밝혀낸 혐의 일부로 먼저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이 기소 전 결정해야 할 부분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엄별 여론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따져왔다.

다만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범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 서도, 지휘·통솔 관계로 이뤄진 조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범들과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라 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습관적인 당신의 불법소각
소중한 산림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소각을 할 때 생기는 크고 작은 불씨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먼곳까지 날아가 큰 산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멈추세요!



“코로나 사태 진정한 영웅은 한국의 정은경 본부장”-WSJ

‘하루에 몇 시간 자느냐’ 질문에 “한 시간 이상은 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글로벌 코로나19 사태에서 진정한 영웅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각국의 전문가들이라며 그 중 한국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을 집중 조명했다.

워커는 WSJ 기자 출신으로, ‘캡틴 클래스(THE CAPTAIN CLASS) :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팀을 만든 리더의 7가지 숨은 힘’의 저자다.

그는 “정 본부장이 1월 첫 브리핑 때 입었던 깔끔한 재킷은 투박한 재킷으로 대체됐고, 머리를 다듬지 않기 시작했다. 정 본부장은 거의 자지 못하며 퇴근하지 않는다”고 운을 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그는 “3주 전만 해도 정 본부장의 이름을 몰랐던 사람들은 SNS에 정 본부장의 건강을 걱정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권자들이 선출한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보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정한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안한 한국인들에게는 그녀의 일관된 논리, 정확한 정보 분석, 침착한

대처 능력이 강력한 치료제가 됐다. 정 본부장이 “바이러스가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공황이 절정에 달했던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믿었다

워커는 정은경 본부장 이외에도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 제니 해리스 영국 보건부 차관 등도 모범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아직 위기를 벗어난 국가는 있지만 나는 정 본부장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걸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 본부장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걸 싫어하고 SNS를 피하며, 나를 포함한 모든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해왔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근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몇 시간이나 자느냐”고 질문하자 정 본부장은 “1시간 이상은 잔다”고 짧게 말했다고 칼럼을 맺었다.

송원기 기자 mbc0300@gmail.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가구 당 천 마스크 2개를 배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일본 트위터 상에서는 이같은 방침을 비판하는 트윗들이 잇따랐다.

‘아베 마스크’ 여론 뜻매에 보완책 마련...아베 리더십 ‘휘청’

천 마스크 가구당 2매씩 배포 계획에 비판 쇄도
스가 장관 “보완책 강구하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한 천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가구당 2개씩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가족 인원수를 무시한 처사는 물론의 뜻매에 결국 추가 방안을 내놨다. 검토 후에 천 마스크를 더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3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천 마스크 배포 방침과 관련 “2가구 주택 등 한 주소에 복수의 가구가 생활하고 있는 경우, 최초로 우편으로 (마스크를) 배포할 때에는 신속성을 위해 우선 2개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거주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배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코로나19 정부 대책 본부 회의에서 일회용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가구당 천 마스크 2개를 배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내 온라인에선 마스크를 2매만 배포하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는 등 비난이 쇄도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 상에서는 아베 총리를 비꼬는 그림과 사진 등도 등장했다.

대가족이 줄지어 2개의 천 마스크를

함께 쓰고 있는 그림이나, ‘무능’이라고 쓰여진 마스크를 쓴 아베 총리의 합성 사진까지 나왔다.

사실, 이른바 ‘아베 마스크’는 해프닝에 기까운 일이다. 정작 심각한 건 의료 붕괴 가능성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 감염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할 것을 감안, 코로나 경증 환자의 경우 병원이 아닌 △자택요양 △호텔 △올림픽 선수촌 등에서 머무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병원 입원이 원칙이다. 경증환자라고 해도 자가나 호텔에서 머물 경우 제 때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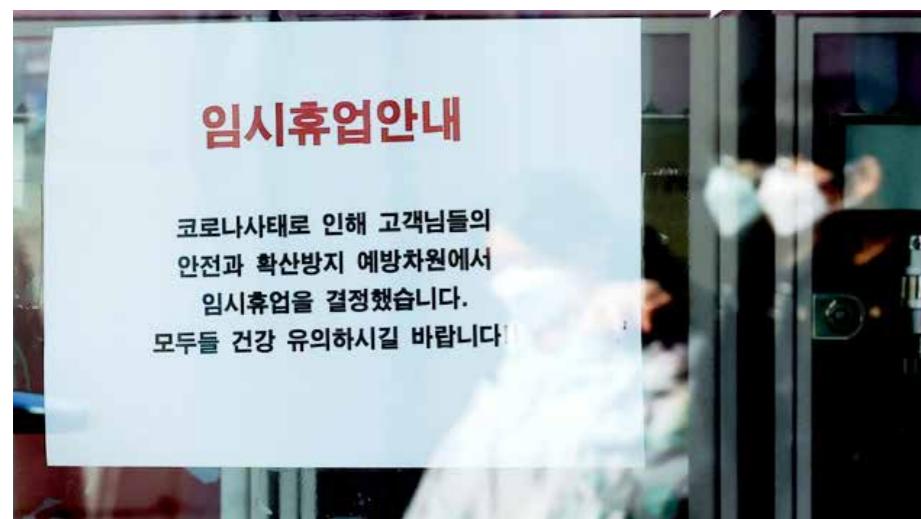
감염 폭발 전 의료 붕괴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조속히 긴급사태를 선언해야 한다고 경고한 일본 의학계와 일본 정부 전문가집단의 경고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도쿄도가 현재 확보한 코로나 전용 병상은 700개이나, 이 가운데 620개가 코로나 환자로 채워졌다.

병상 부족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긴급사태를 아직 선언할 상황이 아니라는 기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선언해야 한다면 주저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사태를 “전후 최대 국난”이라고 규정한 아베 총리,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에 그의 리더십 역시 연일 시험대 위에 오르고 있다.

박경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6일부터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1인당 최대 月 18만원 지원...4964억원 규모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4964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

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근로자 1인당 지원 수준은 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5월 4개월 간의 근무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준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

간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여태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만 유급 휴직·휴업 형태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게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도 지원받는 셈이다.

또 일부 휴업을 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하던 일자리안정자금을 연말까지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 지원 규모도 늘린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일근 기자 sinmun2032@daum.net

디자인+인쇄+홈피+광고+CI.,BI. 원스톱 서비스

인쇄 + 디자인 | 홈피+기획, 디자인 | 광고 + 디자인 | 그래픽 디자인

PACKAGE DESIGN SYSTEM
기업 및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시스템

기업도 ‘메이크업’이 필요할 때。

새롭게 창업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을 때!

www.adparkcom.kr

A PACKAGE Basic ₩ 500,000

CI. 또는 BI. 기본형 + 홍보물 3종 + 템플릿 홈페이지 + 기본간판

B PACKAGE Economic ₩ 1,000,000

CI. 또는 BI. 기본형 + 홍보물 5종 + 일반형 홈페이지 + 사이언시스템

C PACKAGE Premier ₩ 2,000,000

CI. 또는 BI. 기본형 + 홍보물 7종 + 기업형 홈페이지 + 사이언시스템

성공 비즈니스, 전략적 마케팅을 위한
기업 이미지 메이크업!

애드파크 031-904-8805
adpark communications 010-7591-7149
tgpark2043@naver.com

‘총선 최대 빅매치’ 이낙연·황교안 토론, 4월 6일 열린다

與野 잠룡 간 ‘미리 보는 대선 토론’ 결정

“공약 위주 정리”VS”예상 질문 답변 준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최대 빅매치로 평가받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극복위원장인 이낙연 전(前) 국무총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간 TV토론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여야 최대 잠룡(潛龍)이자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간판인 양측의 대결인 만큼 '미리 보는 대통령 선거 토론'이란 말이 나온다.

청할 수 있다

총선 후보자 등록이 다음날(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지만 이 전 총리와 황 대표의 참석은 확실시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해야 한다.



라며 “토론회 참석 대상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연설회 등으로 대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 녹화는 4월 6일 진행되고 유권자들은 4월 7일 방송을 통해 시청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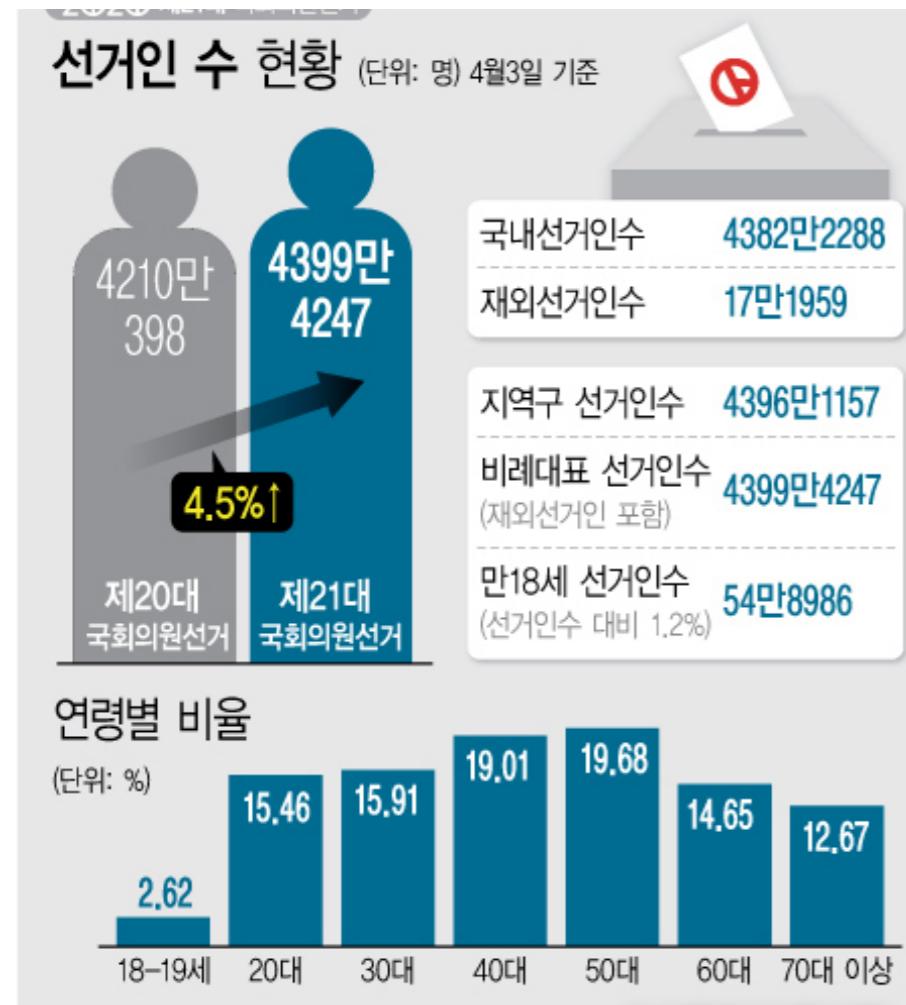
다만 종로선관위 주관 외에 별도의 토론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역 정책 토론회라 공약 위주로 정리를 하고 있다”며 “선관위 주관 외에 별도 토론회에 대한 물밑 논의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황 대표 측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일정이 정해지기 전부터 자료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예상 질문 등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유권자

4399만명...만18세 1.2%



©행정안전부

오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 수가 4399만4247명으로 확정됐다.

(18~19세) 2.6%(115만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지역구 선거인 수 기준
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1106만1850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지난 3일 기준 21대 총선이 선거인 수는 재이선거인 17만1059

명(25.2%)이고, 세종시가 가장 적은 26만3338명(0.6%)이었다.

의 선거인 수는 세회선기준 17년 1959명을 포함해 총 4399만 4247명이다.
지역구 선거인 수는 4396만 1157명,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하는 선거인 수는

명(19.3%), 부산 295만6637명(6.7%)
경남 282만337명(6.4%), 인천 249
만9499명(5.7%), 경북 228만516명

3만3090명이다. 20대 총선 당시 선거인 수(4210만 398명)보다 189만3849명(4.5%)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만 18세 유권자는 54만8986명이었다. 전체 유권자 수의 1.2%를 차지한다.

(5.2%), 대구 207만171명(4.7%), 충남 178만1324명(4.1%), 전남 159만1919명(3.6%), 전북 154만2034명(3.5%), 충북 135만3611명(3.1%), 강원 132만3338명(3.0%), 대전 123만6706명(2.8%), 광주 120만7972명(2.7%), 울산 95만3288명(2.2%), 제주 55만3198명

유권자 성별로는 지역구 선거
인 수 기준으로 여성이 2217만3947
명(50.4%)으로 남성(2178만7210
명·49.6%)보다 38만6737명 더 많았다.

개) 선거구 313만9093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0.17%인 5413명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대 19.0%(836만명), 30대 15.9%(699만명), 20대 15.5%(680만명), 10대

오일근 기자 sinmun2032@daum.net

현역 의원 지역구 옮긴 ‘돌려막기 공천’ 얼마나 성공할까

통합당, 현역 의원들 험지로 재배치했지만 고전 많아

텃밭에서 험지로 옮겨 당선, 종로 정세균 외 드물어

“낙선자 속출하면 총선 후 공천 책임 논란 일 수도”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요 현역 의원에 대한 ‘돌려막기 공천’으로 텃밭은 물론 험지까지 넘보는 총선 싹쓸이 전략을 세웠지만 예상대로 적중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은 현역 돌려막기는 인지도가 높은 의원을 주요 험지에 끌어와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탈환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야당으로서 인재 영입이 쉽지 않아 인물난을 겪고 있는 속사정도 맞물려있다.

통합당에서 지역구를 바꿔 다른 선거구로 출사표를 낸 현역 의원은 주로 3선과 4선 중진으로 역대 총선과 비교해도 많은 편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반적인 평가다.

서울 양천을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달성한 김용태 의원은 서울 구로를 배치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와 맞붙는다.

보수의 텃밭과 다름없는 서울 강남 갑에서 3선을 한 이종구 의원은 경기 광주로 차출돼 이 지역구의 현역인 민주당 임종성 후보와 중진 대 초선 대결을 펼친다.

서울 서초갑의 3선 이해훈 의원도 통합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동대문을에서 민주당 장경태 후보, 무소속 민병우 후보와 3파전을 치른다.

인천의 터줏대감이자 3선을 한 안상수 의원도 중·동·강화·옹진을 떠나 동·미추홀을에서 ‘신인’으로 뛰고 있다.

지방에서도 중진들이 험지로 차출됐다. 대구 수성을에서 내리 4선을 한 주호영 의원은 옆 동네인 대구 수성갑에 공천돼 김부겸 민주당 의원을 상대한다.

충청권 4선 정우택 의원은 16년간 기반을 다진 청주상당을 떠나 청주흥덕에서 이 지역 재선 도종환 민주당의

원과 경쟁한다.

이 같은 통합당의 ‘돌려막기’ 전략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성공 확률 1%에 도전한다”는 말도 나온다. 아무리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지역구를 바꿔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일반론이다.

역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텃밭’에서 ‘험지’로 지역구를 옮겨 당선된 사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희귀한 사례로 전해진다. 정 총리는 15, 16, 17, 18대 총선 때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에서 내리 당선된 후 지역구를 서울 종로로 옮겨 19대, 20대 모두 당선된다.

정 총리가 호남에서 ‘정치 1번지’ 종로로 올라와 국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인 데다 생존률도 희박한 편이어서 역대 총선에서 성공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각에선 통합당의 선거전략이 ‘자객공천’이 아니라 ‘자해공천’으로 부작용만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현역 의원을 갑자기 꽂은데 대해 해당 선거구 주민 입장에선 오히려 지역을 무시한다고 여겨 거부감에 따른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통합당의 험지에는 상대적으로 호남 출신 유권자 비율이 높은 만큼 TK 출신 의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아예 본선에 나가지도 못하고 경선에서 탈락한 사례도 속출했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의 3선 김재원 의원은 서울 중랑을로 옮겨 총선 출마를 준비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대구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강효상 의원도 돌연 서울 종·성동갑으로 선거구를 옮겨 경선을 치렀으나 고배를 마셨다.

안상수 의원은 인천에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긴 했으나 무소속 출마에 나선 윤상현 의원과 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우택 의원도 청주에서 뿌리를 깊게 내렸지만 옆 지역구로 옮기고 나선 민주당 도종환 후보에게 열세를 보이고 있고, 김용태 의원도 민주당 윤건영

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이다. 이해훈 의원도 바뀐 지역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통합당 한 중진 의원은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 의원 대부분이 열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에서 ‘골동품’을 갖다 놓

고 재활용하려는데 뽑아주겠나. 낙선 자가 속출하면 총선 후에 공천 책임을 놓고 논란이 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안철수 “문재인 정권 ‘정치 쇼’에 싫증 느끼는 분들 많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토종주를 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조국을 살릴거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거냐”

대전서 선대위 회의…“날 비난하기 전에 3년간 뭘 했는지 반성하라”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조국을 살릴 것이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것이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 권역 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물으면서 ‘조국 살리기’와 ‘경제 살리기’ 중 “무엇이 우선해야 하는지 삼척동자도 잘 알 것”이라 고 밝혔다.

그는 “이 사람(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작년에 이미 국민 마음속에서 탄핵 받아 물러난 사람”이라며 “여권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멀쩡한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엄중한 시기에 과연 정부 여당이 그와 같이 (조국 살리기로) 선거를 끌고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 하나하나를 보라. 이 사람들, 단순한 거수기로 불과하다”며 “민주당에 용기 있는 국회의원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태섭이라는 의원은 (공천에) 떨어트려 놓고, 파렴치한 조국을 받들겠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실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래서 과연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국회에 들어간들 정상적인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겠냐”며 “군사정권 시대에도 여당이 지금의 여당처럼 무력한 적이 없나”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내용을 보면 이게 정당인지, 어느 사람에 대한 추종하는 집단인지 잘 구분되지 않는다”며 “정와대만 바라보고 허수아비처럼 행동하는 이 정당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모든 분야를 이 같은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신을 향한 비난 목소리를 높인다면 “나를 비난하기 전에 지난 3년간 뭘 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왜 80세가 다 된 사람이 편안하게 집에서 시간 보내지 않고 이 자리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됐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정권”이라고 했다.

곽동근 기자 joongwon1993@hanmail.net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 행보와 관련 “현 정권의 정치 쇼에 싫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안 대표는 5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권이) 집권 내내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한 탓”이라며 “(이에 따라) ‘정치인은 쇼만 한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현 정권 들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는 진정성이 부족함을 꼬집었다.

안 대표는 진정성 관련 본인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제가 의료봉사 간 직후 ‘쇼’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심지어 ‘지인에게 들었는데 안 대표가 사진만 찍는다’고 거짓말 기자 뉴스를 퍼트렸다”고 운을 뗐다.

안 대표는 “그 가짜뉴스는 단 몇 시

간만에 조직적으로 온라인에 꽉 깔렸다”며 “때문에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라고 생각한다. 말보다 행동이 천배 만배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대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료봉사’를 진행했고, 안 대표의 의료봉사는 많은 이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진료를 마치고 땀을 뺏고 허리에 걸친 안 대표의 모습은 각종 포털 정치 분야의 화제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한편 안 대표는 현재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도보로 국토종주에 나섰다. 안 대표는 “국토를 종주하면서 만나뵙는 한분 한분의 마음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방법을 찾겠다”고 국토종주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경희 기자 axoway1212@naver.com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됩니다
정치후원금은 소금처럼 음식의 맛을 살리는 정체 후원금센터 give.go.kr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됩니다
정치후원금은 소금처럼 음식의 맛을 살리는 정체 후원금센터 give.go.kr

**정치후원금
기부하고,
좋은 정치로
돌려 받으세요**

|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전액
세액공제
이하 10만원
초과
세액공제
정액
세액공제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경기 29곳, 자체 재난기본소득 마련...남양주·구리 미정

수원·고양·부천·안산·오산 등 5곳 지급안 추가 확정

자체 재난기본소득안을 확정한 경기 도 기초지자체가 24곳에서 29곳으로 늘었다.

2월 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안을 확정한 경기지역 지자체는 31개 시·군 가운데 93.5%인 29곳이다.

전날 오후 4시 기준 재난기본소득안을 마련한 지자체는 24곳이었다. 여기에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오산시 등 5곳이 추가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시·군별 지급액은 고양·부천·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의정부·광주·하남시 5만원, 수원·안산·오산·여주·파천·파주·평택·시흥·성남·용인·양주시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와 가평군은 10만원이다.

이밖에 양평군 12만원, 이천·동두천 시 15만원, 화성시 20만원, 안성시 25만원, 포천시 40만원이다.

이 가운데 고양시, 안산시는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계없이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매칭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안을 발표하지 않은 지자체는 남양주시와 구리시다.

남양주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을 놓고 고심 중이고, 구리시는 아직 재난기본소득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광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해 남양주도 이에 발맞추려고 한다”며 “지금 액수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예산을 구조 조정하고 있다”며 “가용예산 규모가 나오면 재난기본소득 시행 여부와 지급금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도가 전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9일부터 받는다. 이재명 지사는 1

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선불카드 방식이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경기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홈페이지 신청



지급 대상 2.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 및 현대화 카드(경기도 주민등록번호와 기관 내 출생한 신생아 포함)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사용 중인 지역화폐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사용분 중 10만 원을 자동 차감하는 형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사용할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선불카드 형태로 받는다. 20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5.17)에는 1인 가구 또는 미신청 가구의 신청을 받는다. 해당 주간 중 신청일은 마스크요일제와 같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겐 5월 중순 직접 찾아가 발급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성남시, 대형교회 14곳 부활절 행사 ‘온라인 예배’ 진행

성남시는 대형교회 14곳에서 오는 12일 부활절 행사를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주말 온라인 예배도 12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2일 대형교회 14곳 지도자들과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임원진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종교계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한 바 있다.

대형교회 14곳은 오는 12일 부활절 행사를 개별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이날 오후 7시 지역 커뮤니티 온라인을 통해 14개 교회 지도자들의 합동 설교 영상을 신도들이 시청할 예정이다.

또한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소속 교회들은 부활절 예배를 연합회 주관으로 교단별 대표 약 100여명만 참석하는 가운데 축소 진행한다.

한편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오는 7일

유월절 행사를 온라인 예배로 진행한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공무원 137명을 투입해 주말 집합 예배를 실시하는 중·소형교회 현장을 직접 찾았던 것이다.

8대 제한령령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집합예배 자체 및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또한 4월1일 수요집합예배를 실시하는 교회 등 30곳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했다. 오는 5일에는 경기도와 협동으로 주말 집합예배 현장을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신천지 시설 16곳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대축일인 부활절에 온라인 예배로 선뜻 전환 결정해 준 종교계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오는 5일 이들에게 감사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윤조 기자 wj373@gmail.com

군포시, 자가격리 불이행 확진자 부부 등 가족 3명 경찰 고발조치…역학조사까지 거부·방해 혐의



격리 위반·무시 잇따라…이젠 민·형사책임 각오해야 (CG) (출처 : 연합뉴스TV)

부부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CCTV, 차량블랙박스 등으로 동선을 확인중이다”며 “이후에도 군포시는 자가격리 수칙 불이행은 물론 역학조사 거부와 방해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고발 조치했다고 군포시는 밝혔다.

군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들

이들 부부는 지난 1일과 3일 경기도 의료원 성남병원에 이송되어 치료 중이며 군포시는 4일 10시 현재 코로나 19 확진자는 29명, 자가격리자는 180명이다.

조희천 기자 hechun1211@naver.com



성남시 공무원들이 집합예배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성남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천년왕도

경주

남산지구

대릉원지구

불국사

산성지구

월성지구

황룡사지구

불국사

경주시의회

http://gicouncil.or.kr

소통하는 의정, 시민중심의 의회

“경주시의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용인시, 코로나19 피해자 수도요금 체납 처분 유예

납부능력 없는 피해 주민·업체 대상…담보 없이 최대 1년

경기 용인시는 5일 코로나19로 피해

를 입은 주민과 업체를 대상으로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압류나 단수처분을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감염병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동안 수입이나 매출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확진환자가 다녀간 업체 가운데 밀린 수도요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업체 중에선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이 해당되며 유흥업소

는 제외된다.

신청을 하려면 격리·입원통지서나 폐쇄명령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 상수도사업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보없이도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은 물론 정수(단수)처분까지 6개월 단위로 1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시는 별도로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라도 대상 범위에 해당되면 직권으로 정수처분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031-324-4227)로 문의하면 된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경기도교육청 “봉사활동 실적 만점 40시간”으로 조정

2021학년도 고입전형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2021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전후 기로 나누 진행하며 중학교 내신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전기학교는 과학교,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 학과로 전기학교 입학전형은 오는 8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다.

후기학교는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로 입학전형은 오는 12월 9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다.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일

수 감축 등 학교 현장 상황을 고려해 2020학년도 입학전형과 달라진 것들

이 있다. 우선 2021학년도 전기학교 모

집인원 미달교과 비평준화 지역 후기

학교와 외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모집인원이 미달인 경우 2020학년도에는 2차까지 추가모집을 했지만 2021학년도에는 한 차례만 하고 수시모집은 예년과 같다. 또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원서접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2일이 줄어든 3일간 진행된다.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 방법도 일부 바뀐다. 먼저 봉사활동 실적 만점 기준 시간을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조정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수업일수 감축 등 학생들 봉사활동 참여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또 학교 활동 실적 가운데 영역별 수상 실적 인정 점수 부여 인원 비율을 참가 인원의 5%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해 2021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동근 기자 joongwon1993@hanmail.net

남양주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매출 급감한 점포에 특별지원금 전달



조광현(오른쪽) 시장이 1일 최고우리농산물 대표에게 특별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농협, 코로나19 여파 농촌 인력 부족에 일손돕기 나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장섭)는 2일 코로나19 여파로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화성시 포도재배 농가를 찾아 월동 병해충 방제농장 정리 작업 등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차질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자원봉사자가 감소하는 등 영농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이루어졌다.

김정기 기자 kiosp200@hanmail.net

김장섭 본부장은 “경기농협은 농업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농협은 의정부와 파주 관내 2개 농협에서 운영 중인 정부협력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올해 8개 지역 8개 농협으로 확대 운영하고 31개 시군지부 및 132개 지역농협의 농촌 인력중개센터를 조기 가동하는 등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이후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포를 방문해 특별 지원금을 전달하고 업체 대표를 격려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조 시장이 방문한 화도읍 소재 최고우리농산물은 지난 2월 23일 확진자 동선공개에 포함된 점포로, 철저한 방역소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화도읍 소재 피해 점포를 시작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모금된 ‘코로나19 서로버팀목 되어주기’ 후원

금을 활용해 매출감소 등의 실질적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 시장은 “확진자가 다녀간 모든 업소는 남양주시에서 철저하게 방역하고, 살균 소독해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며 “시민들이 마음 편히 방문해주시길 바라며, 이웃이 이웃을 돋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덕환 기자 sunmoonii500@naver.com

시민의 행복한 세상,
남원시의회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 ✓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 ✓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영덕 해안에 해상 케이블카 들어선다

2021년까지 사업비 377억원 투입… 삼사해상공원~해파랑공원 1.3km

경북도, 영덕군, (주)영덕해상케이블카가 6일 영덕군청에서 377억원 규모의 '영덕 해상 케이블카 사업'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주)영덕해상케이블카는 영덕군 강구면 일원에 2021년까지 사업비 377억원을 투입해 편도 1.3km의 해상케이블카 및 상하부 승강장, 상업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자연조망을 극대화한 삼사해상공원과 강구항, 해파랑공원을 잇는 영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관광객 모집효과가 뛰어나 국내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 부산 등에서 해상 케이블카는 연간 150만~200만명의 탑승객이 이용하는 등 대표 관



영덕해상케이블카 조감도. ©경북도 제공

광지가 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투자가 최근 삼사유원지 리조트, 베스트웨스턴 호텔 등 잇따른 영덕 내 관광분야 투자계획들과 더불어 지역관광 및 경

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지역관광업계 침체가 우

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해상케이블카가 대표여거리 대체, 해맞이공원, 블루로드 등과 함께 영덕의 대표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광산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와 영덕군은 이번 사업으로 연간 100만명 이상의 탑승객을 통한 84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765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축산블루시티조성 사업,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과 함께 영덕이 동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영달 기자 bod600@naver.com

부산, 닷새째 추가 확진자 없어…지역감염 14일째 '0'

부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째 발생하지 않았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112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총 확진자 수는 119명(누계)을 유지했다.

지역사회감염도 지난달 23일 이후

14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자가격리자는 해외입국자 증가로 인해 전날(2254명)에 비해 321명이 증가한 2575명이다. 그동안 격리해제된 인원은 총 3959명이다.

지난 1일 이후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통한 해외입국자는 총 1305명이며, 이중 490명이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

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지난 2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총 87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확진자 중 사망자는 총 3명이다.

현재 부산에서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총 29명이며, 확진자를 치료 중인 격리병원 현황은 부산의료원 39명(타

지역 이송환자 14명 포함), 부산대병원

6명(타지역 이송환자 2명 포함)이다.

감염경로별 확진자는 접촉자 42명(퇴원 31명), 온천교회 관련 32명(31명), 대구 관련 13명(12명), 신천지 교회 관련 6명(6명), 청도 관련 2명(1명 퇴원, 1명 사망), 해외 입국 17명(1명) 등이다. 나머지 7명(5명 퇴원, 2명 사망)은 정확한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신호 기자 aea2779@naver.com

또한 교육청 및 여성단체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피해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피해신고 방법 다양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은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피해 신고 팝업창과 배너를 게시하고 여기

에서 바로 사이버범죄 신고 코너로 연결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SNS로도 경찰과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내에 신고 채널을 설치하고 피해신고·상담 전용 전화를 지정해 채팅이나 전화로 24시간 상시 신고와 상담을 접수하기로 했다.

송민현 대구경찰청장은 "범죄수익

을 살살이 찾아내 몰수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

다"고 밝혔다. 이시라 기자 ditif115@naver.com

통영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코로나19로 사업중단 장기화, 취약계층 생계보호대책 마련

경남 통영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 중단 기간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3월분 활동비를 4월 10일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 종 공익활동 참여자 2천75명이 해당되며 선지급에 대한 추가 활동 동의자에 한해 30만원(활동비+수당)이 지급된다.

통영시는 지난 1일부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통영시니어클럽 등 5개소)에서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유선, 문자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해 의사(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부득이한 경우 내방접수

를 통해 동의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 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인일자리사업 종 사업형, 사회서비스형사업은 선지급 대상이 아니며, 공익활동 참여자라도 추후 활동시간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밝혔다.

차천영 기자 lovesg427@hanmail.net

'세종형 플랫폼택시' 내달 2일 달린다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 결재…카시트 등 부가서비스 제공



신개념 '세종형 플랫폼 택시'가 내달 2일부터 달린다. 이는 스마트폰 앱으

로 승차거부 없이 호출·결제하고 카시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개념 택시다.

세종형 택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면허' 기반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로 단순 운송 서비스 외에도 영유아 카시트, 여성안심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운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플랫폼 택시는 강제배차를 지향해 승차거부가 없다는 점에서 '카카오T'와 다르며 택시운전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행이 가능한 '타다'와 다르다.

플랫폼 택시 이용 시에는 스마트폰 '마카롱택시 앱'에서 세종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신속 배차되며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도 기존 전화콜(☎ 044-862-5000)을 통해 호출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기본료와 거리요금 체계는 기존 택시와 동일하며 호출료는 즉시 호출 1,000원, 예약 호출은 2,000원이 부과되며 영유아 카시트 이용 시 추가로 1,000원이 가산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달 2일부터는 세종시 관내 범인택시 전부가 참여하는 시범서비스가 개시되며 3개월간의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는 개인택시 지원자를 포함해 플랫폼 택시가 전면 도입된다.

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플랫폼 택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신도시 택시 부족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영유아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카시트 설치 확대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대구경찰 '디지털성범죄 발본색원 나선다'

대구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 경험자 중 7.4% 만이 피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했다고 응답했다.

피해에 대응한 7.4% 중에서는 경

찰에 신고했다는 답변은 13.9%에 그쳐 여전히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신고 방법과 절차를 일대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 및 여성단체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피해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피해신고 방법 다양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은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피해 신고 팝업창과 배너를 게시하고 여기

에서 바로 사이버범죄 신고 코너로 연결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SNS로도 경찰과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내에 신고 채널을 설치하고 피해신고·상담 전용 전화를 지정해 채팅이나 전화로 24시간 상시 신고와 상담을 접수하기로 했다.

송민현 대구경찰청장은 "범죄수익

을 살살이 찾아내 몰수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

다"고 밝혔다. 이시라 기자 ditif115@naver.com

국민과 함께 새 시대를 여는

SEOUL FOCUS

2020년 4월호 | 월간 발행 | 2020년 4월호 | 제107호 | www.hanminbo.co.kr



국민과 함께 새 시대를 여는

서울포커스

4월호
2020년

구독문의
02-839-6077

구독료
월 15,000원 / 연간 15만 원



“이철우 경북지사, 위기대응능력 돋보였다”

문재인 대통령, 1일 구미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경북도 대응 높이 평가

“이철우 경북지사의 위기대응능력이 돋보였습니다.”

지난 1일 경북 구미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경북도와 이 지사의 위기대응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철우 경북지사 등과 함께 국가산업단지인 구미산업단지를 방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한 것은 지난달 25일 대구를 찾아 ‘코로나19’ 대응 전담의료기관 등을 점검한지 한 달여 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경북 구미시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에서 열린 구미산업단지 기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철우(사진 우측 첫번째) 경북지사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민심을 위로하고 침체에 빠

진 경제를 함께 되살리자는 뜻을 강조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경북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걱정이 큰 지역인데

미스터트롯 영탁, 예천 ‘영탁막걸리’ 모델 됐다

예천양조(주)와 모델 전속계약…5월 중 제품 출시



예천양조(주)에서 생산 중인 막걸리 제품. ©예천군 제공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큰 인기를 받은 가수 영탁의 이름을 붙인 ‘영탁막걸리’가 출시된다.

미자 막걸리 등 우수한 품질의 막걸리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은 예천 인근 지역인 안동이 고향이다.

안동 영가초·안동중·안동고를 졸업한 1983년생이다. 영남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가수의 길에 들어선 올해 15년차 중견 가수다.

백구영 대표는 “오랜 노력으로 완성된 주조 비법의 기술력과 검증된 맛에 인기 가수 영탁을 모델로 한 신제품 ‘영탁 막걸리’에 힘입어 전국 대표 막걸리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삼강주막 생막걸리, 예천 생탁주, 오

이시라 기자 ditifk115@naver.com

구미보훈단체협, 행사성 예산 반납 동참

구미시 보훈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1일(수) 보훈회관에서 10개 보훈·안보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따른 행사성 예산을 반납하는데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또한, 구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재난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홍보 및 신청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행사성 예산에 적극 동참해 준 보훈·안보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배영일 기자 bod600@naver.com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 Thunderbolt™ 3 외장 스토리지

Thunderbolt™ 3 기술과 NVMe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는 전문 콘텐츠 제작자에게 필요한 눈부신 전송속도를 선사합니다.
슈퍼카를 닮은 세련된 디자인, 첨단 열 처리 기술과 암호화 기술로 완성한 최상의 스토리지를 경험해보세요.

* USB 인터페이스 기능만 지원하는 PC에서는 호환이 불가합니다. Thunderbolt™ 3 포트가 설치된 Macs 및 Windows PC에서만 호환 가능하며, 호스트 구성에 따라 성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Mac OS X Sierra, High Sierra 10.12 또는 그 이상, Windows 10 64 bit RS 2 또는 그 이상) 최대 일기/쓰기 속도 실험 시스템 환경: Dell Alienware System (Dell i7 Alienware 17 R5), OS - Win 10 x64, CPU - Intel® Core™ i7 8570H (@4.1GHz), Memory - DDR4, 16GB 2667 MHz, BM Tool - CDM 5.1.2

X5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samsung.com/portable-ssd에서 확인하세요.

기애 청도 대남병원과 신천지 신도 등으로 인해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으나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대처한 결과, 차츰 진정세를 찾았다고 분석했다.

경북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등 3개 의료원 신속하게 비워 병상 선제적 확보했고 39개소 2300여실의 생활치료센터도 미리 준비한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지사는 면 마스크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이른바 ‘경북형 마스크’를 개발해 마스크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노력한 점과 대구지역 환자를 경북지역 생활시설에서 적극 수용한 사례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와 정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방역 대응과정에서 적기에 부족한 것들을 중앙 정부가 뒷받침해준 데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다.

경북도는 정부의 각별한 지원 속에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안정을 찾았다고 29일 밝혔다. 29일 0시 기준으로 도내 확진자는 1257명, 완치자는 789명으로 완치율이 62.7%다. 초

이 지사는 “지나칠 정도의 이 같은 선제적 조치로 인해 한 건의 확진자 발생도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천영 기자 lovesg427@hanmail.net

SAMSUNG

선거판 흔든 명함 한 장, 국민연금공단 인사특혜 시비

정동영 후보, 한국정보인증(KIKA) 김○주 경영고문 명함 TV토론서 공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 김성주 후보, '친형' 인정 …인사특혜는 부인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 병 선거구에서 명함 한 장이 TV토론서 물론 SNS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전주병은 문재인 정부 첫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야당 거물 정동영 후보(민생당)가 맞붙고 있는 호남 관심지 역이다.

정 후보는 지난 3일 전주MBC 4·15 총선 후보자 토론회(선관위 주관)에서 '한국정보인증(KIKA) 경영고문 김○주'라고 새겨진 명함을 공개했다.

한국정보인증은 IT 기업이자 증권 회사인 다우기술과 키움증권의 계열사로 국민연금공단이 이들 회사 주식 8.23%(369만주)를 보유, 제2대 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명함의 주인이 '경영고문 김○주'는 올초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었던 김성주 후보의 친형으로 밝혀졌다.

정동영 후보는 "김 후보가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의 직위를 이용, 공단이 투자해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취직시킨 것 아니냐"고 공개 질문했다.

이 같은 질문은 지난 1일 전주방송 (JTV) 후보 토론회에서부터 제시됐었



문화재청 청년기획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전주병 더불어민주당 후보 형의 명함. ©뉴시스

다. 당시에는 명함이 공개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전주방송 토론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명함이 공개되자 김 후보는 "친형이지만 이사장으로 가기 전 쓰던 명함을 무보수로 사회활동 차원에서 쓴 것으로 인사특혜와 전혀 관계없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형은 이 명함을 최근까지 사용했다"며 "그 증인이 다 있고 사회활동 차원에서 썼다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공격했다.

정 후보는 또 "문재인 정권 초기 고위공직자의 인사청탁 문제"에 관련된 인물이기도 하다.

두일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며 "만약 그

실체가 드러나면 김 후보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형 김○주씨는 한때 김 후보가 대주주(50%지분)로 있는 전주소재 컴퓨터 부품 및 관리 회사 대표이사로 지낸 바 있고 현재도 이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정보인증 명함이 나오기 전에는 광주 소재 컴퓨터 회사 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주씨는 김 후보가 전라북도의원 시절부터 전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관급 공사를 대거 수주했다는 의혹에 관련된 인물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증거 없이 의

혹만 가지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며 "정 후보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는 "나는 직위를 이용한 어떤 관급공사도, 인사청탁도 없었다"며 "정치 선배가 허위사실을 선거판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의 형 김○주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2016년부터 1년 정도 사회활동 차원에서 회사가 배려해 사용했다"며 "보수도 전혀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김 후보와 정 후보의 TV토론회는 유튜브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한편 한때 컴퓨터 관련 납품 업체를 운영했던 김 후보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첫 사업으로 1000억원대 컴퓨터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시민단체 대표는 1000억대 사업은 과거 작은 컴퓨터 관련 업체 사장 출신인 김 후보가 자기 이권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전주서 총선 후보자 벽보 훼손 신고

이상직 후보 선거벽보 훼손…경찰 수사 나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 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전주 지역 선거 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벽보가 훼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용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설재 기자 tosjy@naver.com

임실군,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특별지원…월 최대 50만원

전북 임실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 주도의 일자리 안정 및 사업장 감염 차단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실직자 등 사각지대 생계비 지원과 이들을 위한 공공 분야 단기 일자리를 마련, 총 165명을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저소득 무급휴직근로자,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를 1인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최대 2개월)을 지원한다.

또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약 3개월간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위해 추진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장성군, 감염차단 해외 입국자 교통편 제공

장성군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해외 입국 주민이 나주 한전

KPS 인재개발원, 농식품 공무원 교육원 등 전남도 임시 견사시설로 임소하거나 자가 또는 군 격리시설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임국자 전용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들은 3일간 임시 견사시설로 임소해 감염 여부를 검사받게 된다.

이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임국자는 자택 또는 지자체 지정 시설로 이동해 다시 14일간 격리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군은 이밖에도 격리기간 동안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 입국 주민의 건강을 확인하고, 방역용품 및 생필품도 지급하고 있다.

유창렬 기자 yuchang0916@naver.com

강원 춘천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농번기 농촌인력 공급 차질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의 협의에 따라 국내 방문 동거(F-1) 체류자와 외국인이 한시적으로 농업 분야 계절 근로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계절 근로 근무 허용대상은 방문 동거(F-1) 체류자와 외국인 등록을 한 19세 이상 59세 이하의 외국인이며 반드시 한국으로 초청한 주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무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6월 사이에 계절 근로를 시작해 지자체가 정한 기간(90일 또는 5개월)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인정된다. 다만 90일 미만 근무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

지자체로부터 계절 근로자로 농가배 정을 받은 외국인은 담당 외국인 관서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오는 6월 19일까지며 필요 인원이 충족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춘천 내 거주 중인 방문 거주 체류자와 외국인 중 농업 분야 계절 근로를 원하는 자는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직접 접수 또는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전자우편(ljy0724@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문 동거 외국인의 계절 근로 취업 허용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농가들의 인력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춘천 내에 거주 중인 방문 거주 외국인분들이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덕환 기자 sunmoon500@naver.com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성남
성남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진정·민원 031)729-2532~3

LIVE 인터넷방송 보기 www.sncouncil.go.kr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은 인터넷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497억원 투입 4만3000여 명 일자리 지원

강원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긴급 일자리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497억원을 긴급 투입해 4만 3260여 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직자, 실업자는 물론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난 달 무급휴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등 생계비 지원을 위해 7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대상은 무급 휴직자 5000여 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5200여 명이다. 또 코로나19로 피해(전면 또는 부분 중단)를 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들에게 2개월 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 심각단계(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1일 8시간 기준 2만5000원으로 무급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액(월 최

코로나19 극복 긴급 일자리 특별 대책 마련

무급휴직자 등 2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원



대 20일, 50만원)이 결정되며,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해 사업주가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근로자 개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일정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고용보험 등 증빙이 불가해 지원이 어려웠던 방과 후 강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근로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일 2만5000원, 2개월 최대 100만원(월 최대 20일,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일 전 3개월 동안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입증 서류와 함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증빙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접수는 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일자리 관련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홍남기 도 일자리국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홍 기자 ypaper@kg21.net

청주시, 스쿨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연말까지 초등학교 앞 78곳 순차 설치



시 관계자는 "교통안전 표지판, 방호 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물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별법 조기 종결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말까지 33억원을 들여 지역 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78곳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설치된 14곳을 포함하면 지역 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94곳 중 92곳의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되는 셈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시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김다님 기자 eksa777@naver.com

철원군농업기술센터, 귀농인·영농 승계농 정착지원금 지원

강원 철원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는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20년 귀농인 및 영농 승계농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의 사업자를 모집한다.

'귀농인 정착지원금'은 다른 시·도 도시지역 또는 도내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는 귀농인에 한해 지원한다.

사업 공고일(4월1일) 기준으로 도

내 농어촌 지역에 2년 이내에 전입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중 만 20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귀농인이 해당된다.

'영농 승계농 정착지원금'은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수증 등을 통해

영농기반을 확보하고 농어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을 전업으로 독립영농경력이 3년이상 5년 이하인 영농 승계농에게 지원한다.

선발된 귀농인(4명) 및 영농 승계농(2명)에게는 1년차에는 월80만 원씩 12개월, 2년차에는 월50만 원씩 12개월 총 2년간 156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정호복 기자 jhoo48@naver.com

인제군, 소양호 어로어업 어구실명제 전격 시행

강원 인제군은 소양호 어구실명제를 6월 1일부터 전격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소양호 어업인들 대상으로 어구표지기 부착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달부터 다음달 까지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어업인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어구마다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인제군 관계자는 "어구실명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구실명제는 어구 부설시 당해 어구의 끝마다 양쪽 끝에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발 등에 어업자의 실명 표지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정호복 기자 jhoo48@naver.com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 취임, "당면한 현안 풀겠다"



최명규(사진) 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 재개발원 기획부장이 제49대 전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공식적인 취임식 없이 비상상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www.theuniontimes.co.kr

회장 송원기	발행·편집인 추교진	인쇄인 현재오
대표전화 : 1899-2026	팩스 : 02-558-2289	E-mail : mbc0300@gmail.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42		
2020년 2월 24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34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2026 / 구독료 : 월 15,000원 -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행복도시 GIMPO

김포도시철도

시민행복·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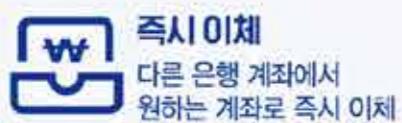


NH농협금융

한번에 오픈 편하게 뱅킹

오픈뱅킹의 시작, NH농협은행에서

2000만이 선택한 NH농협은행 모바일 플랫폼-
NH농협은행 오픈뱅킹만 있으면 18개 주요은행
어떤 계좌든 조회, 이제 다 가능하니까!



즉시 이체
다른 은행 계좌에서
원하는 계좌로 즉시 이체



자금 충전
다른 은행 계좌에서
NH농협은행 계좌로 충전 가능



모바일 ATM
ATM 출금잔액 부족 시
타 은행에서 충전 후 출금 가능



더 모임 서비스
모임 회비납부 시
타 은행 계좌에서 출금 가능
(11월 23일 이후 적용 / 물연령제에서 가능)



더치페이 서비스
더치페이 서비스 이용 시
타 은행 계좌로 출금 가능
(11월 23일 이후 적용 / 물연령제에서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900002688 (2019.11.07. ~ 2021.11.30.) *NH농협은행 디지털채널부 개별상품

NH농협은행



함께 만드는 건강한 대한민국
농협이 함께 하겠습니다

NH 농협